

다시 떨어진 코스피 2,800선

장 마감 코멘트

- KOSPI 2,780pt (-0.84%), KOSDAQ 829pt (-2.04%)
-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 압력에 양 시장 낙폭 심화, 코스피 2,800선 안착 시도 불발
- 미 증시는 주요 기술주 강세 힘입어 상승, 다만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트럼프 리스크' 반영하며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국내는 매물 소화 진행. 달러엔 환율이 162엔에 근접하는 등 엔화 약세 연동해 달러원 환율도 1,380원대 후반까지 상승, 외국인 선물 매도세 확대되면서 지수 낙폭 심화
- 전일 강세 보인 제약/바이오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테슬라 급등에도 2차전지 대형주 약세 보이며 코스닥은 2% 넘게 하락
-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업 기대감 유지된 은행, 증권, 보험주 상승. 전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상승, 상해 지수와 니케이 지수 장 중 각각 3천선, 4만선 회복
- 오늘 밤 발표 예정인 5월 JOLTs 구인건수는 795만건으로 4월 (805만건)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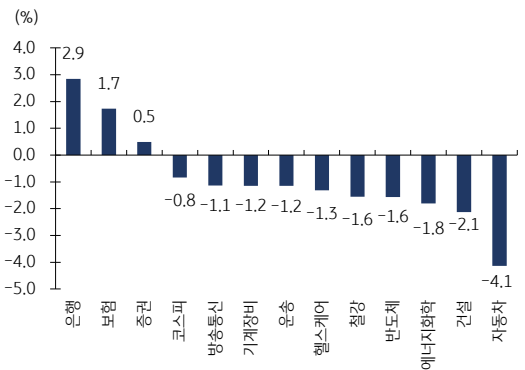
코스피	2,780pt (-0.84%)	
코스닥	829pt (-2.04%)	
매매동향 (억원)	코스피	코스닥
개인	+3,986	+2,960
외국인	-332	-1,042
기관	-3,565	-1,640
코스피 P/E, P/B (배)	9.85 / 0.93	
고객예탁금 / 신용잔고 (조원)	56.5 (+0.1) / 20.1 (+0.0)	

주: 15시 30분 기준
단, 고객예탁금, 신용잔고는 2거래일 전 기준
P/E, P/B의 경우 전일 기준값에 지수 변동분만 반영된 미확정 데이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장 마감 특징주 (*당시 커버리지 종목)

- 상승업종: 은행 +2%대, 보험 -1%대 / 하락업종: 자동차 -4%대 등 대부분 하락
- 삼성바이오로직스* (+6.72%):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원의 위탁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강세 (이투)
- LIG넥스원* (-11.45%): 수주 및 실적 기대감으로 올해 상반기 주가가 68.6% 상승했으나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투자의견 하향하며 급락 (7/1 발간)
- 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계열 호텔·리조트 운영사 소노인테리어가 티웨이항공 지분 매입을 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상승 (아주)
- 한국석유: 미국 석유 수요 증가 기대감, 허리케인 발생, 중동 지정학적 긴장 확대 우려 등으로 하반기 원유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자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강세 (한경)

업종별 등락률



<KB리서치 산업 및 커버리지 변경 내역>

- 목표주가 상향: LIG넥스원 200,000원 (투자의견 Hold로 하향), NH투자증권 16,000원, 한국금융지주 90,000원, 삼성증권 56,000원, 키움증권 165,000원
- 목표주가 하향: 카카오뱅크 27,500원, 미래에셋증권 8,400원

증시 캘린더

(미: 미국, (유: 유럽, (중: 중국, (한: 한국, 한국시간 기준 (자료: Bloomberg, 인포맥스)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휴장) 홍콩 (미) 5월 건설지출, 6월 마켓/ISM 제조업 PMI, (유) 6월 마켓 제조업 PMI (중)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한) 6월 수출입 동향	(미) 5월 JOLTs (구인률) (한) 6월 CPI	(미) 5월 제조업주, 내구재주문, 5월 무역수지, 6월 ADP 민간고용, 6월 마켓 서비스/종합 PMI, 6월 ISM 서비스업 PMI (유) 6월 마켓 서비스/종합 PMI (중) 6월 차이신 비제조업/종합 PMI	(휴장) 미국 FOMC 의사록, OECD 경기선행지수	(미) 6월 비농업부문 고용, 실업률 (한) 5월 경상수지 (실적) 삼성전자 (잠정), LG전자 (잠정), (일) 아스카와 전기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투자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